

「やさしい日本語」의 필요성과 일반화에 대한 교육학적 고찰

—제2 언어습득의 관점에서—

김지은

목차

I 들어가며	1
II 본론	2
1. 「やさしい日本語」의 필요성과 효과에 관한 고찰	2
2. 「やさしい日本語」와 일본식 표현	5
2-1. 「やさしい日本語」와 경어 표현	5
2-2. 「やさしい日本語」와 완곡한 표현	7
3. 「やさしい日本語」에 대한 교육학적 고찰	9
3-1. 매슬로의 욕구 위계 이론에 입각한 「やさしい日本語」	10
3-2. 스티븐 크라센의 Input 가설에 입각한 「やさしい日本語」	13
III 나가며	16

주제어:やさしい日本語, 쉬운 일본어, 제2 언어습득, 욕구위계이론, Input 가설

I 들어가며

언어는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고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언어는 상호 간의 연결과 소통을 의미하기도 한다. 인간이 가진 언어는 소리의 형태에서 문자로 변화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언어를 담는 매체 또한 책, 라디오, TV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해 왔다. 언어를 통해 인간 행위의 전반이 축적되어 문화가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그 문화는 인간이 쌓아온 지혜이자 삶 전반에 걸쳐진 무엇이 된다. 말이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모국어가 들리면 반가움과 동시에 동질감을 느끼는 이유는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 언어문화권 안에서 살아왔을 것이라는 신뢰가 그 말소리에 묻어있기 때문일 것이다. 반대로 타국에서 소외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소통의 부재로 인한 소속감의 결여와 상관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타문화를 향한 관심은 곧 그 집단이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로 이어지고, 이는 외국어 학습에 있어 많은 이들의 동기로 드러난다.

그러나 일본에는 외국인 노동자나 국제난민, 국제결혼 배우자 등 일본어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에 정착하게 된 사람들이 있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삶을 담은 저서 『ニッポンに生きる』에 작성된 것에 따르면 그들 중 일부는 기본적인 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취업 문제, 가정폭력 등 일본 사회에서 소외되어 보호받지 못한 상태로 삶을 지속하고 있었다. 또 일본의 거품 경제 시기 노동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암묵적으로 수용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을 거품이 꺼진 이후 불법체류자로 간주하여 자국으로 추방하여 국제적 비난을 받은 일도 있었다.¹⁾

이처럼 삶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를 겪는 와중에 기본적인 의사소통이나 정보 수집에도 문제를 겪는 이들은 일본 사회에서 ‘정보 약자’가 될 가능성이 현저하다. 특히 지진,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가 많은 일본에서는 재해 시 대피와 관련한 정보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정보 약자는 곧 생존에 취약한 상태로 발전하게 된다.

이때 언어 사용에 있어 외국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 바로「やさしい日本語」이다. ‘쉬운 일본어’²⁾로 번역되는 “「やさしい日本語」는 평소 사용되고 있는 말을 외국인도 알 수 있도록 배려한 간단한 일본어를 말한다.”³⁾ 「やさしい日本語」는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어도 영어도 충분히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적절한 피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⁴⁾으로 재해 상황으로 인해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재해 상황이 계기가

1) 共同通信社取材班(2011) 『ニッポンに生きる』 現代人分社 pp.22-25, pp.53-55.

2) ‘쉽다’를 의미하는「易しい」와 ‘친절하다’를 의미하는「優しい」의 중의적 표현으로 히라가나「やさしい」로 표기하나, 국내 연구에서는「やさしい日本語」를 주로 ‘쉬운 일본어’로 번역하여 나타냄

3) 「やさしい日本語」とは、普段使われている言葉を、外国人にも分かるように配慮した簡単な日本語のことです。
(静岡県 県民生活局 多文化共生課(2018)「やさしい日本語」の手引き 静岡県庁 p.2 의 일부를 번역)

4) 「やさしい日本語」は阪神淡路大震災時の経験を元に、日本語も英語も十分にわからない外国人の方々に必要な情報をわかりやすく提供し、適切な避難行動が取れるように考え出されたものでした。(「子どもや外国人にもわかりやすくーNHKの津波警報で注目の「やさしい日本語」とは」<YAHOO!JAPAN ニュース> 2016.11.24.)

되어 탄생한 개념이지만, 그 효과를 인정받아 현재는 의료, 복지, 교육, 방재, 예술 문화, 관광⁵⁾ 등 사용 범위가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 적용 대상 또한 외국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이와타 카즈나리(岩田一成)는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 고령자, 장애가 있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이 대상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⁶⁾ 「やさしい日本語」의 사용 범위와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일본어를 모어(母語)로 하지 않는 일본어 학습자⁷⁾가 접하게 되는 일본어에도 변화가 있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이 일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고급 일본어 사용을 위해 일상생활에서도 높은 수준의 일본어를 추구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어떤 외국인에게 일본어는 생존을 위해 알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실현을 위해 필요한 일본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やさしい日本語」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사용하는 언어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의미 파악이 어려운 표현을 예시로 「やさしい日本語」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더불어 「やさしい日本語」로의 대체가 과연 모든 영역에서 유효할 것인지 매슬로와 크라센의 이론을 바탕으로 제2 언어습득의 관점에서 비판하고자 한다.

II 본론

1. 「やさしい日本語」의 필요성과 효과에 관한 고찰

서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やさしい日本語」는 재해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외국인도 알기 쉽도록 전달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때 사회적 통념상 외국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언어로 영어를 떠올리기 쉽다. 흔히 말해 세계 공용어로서의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외국인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가장 용이한 도구라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나타나는데, 외국인을 응대할 때 서툰 영어를 사용하려 애쓰는 장면이 이러한 고정관념을 잘 설명하는 단적인 예시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일반적인 사고를 따르면 재해 상황에서 사용되는 언어 또한 영어인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만국 공통어이자 세계어로 여겨지는 영어가 아닌 ‘쉬운 일본어’인 「やさしい日本語」의 필요성이 대두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대부분이 영어보다 일본어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기 때문이다.

<<https://news.yahoo.co.jp/byline/tanakaiki/20161124-00064777>>(접속일: 2023.09.11.) 의 일부를 번역)

5) https://www.seikatubunka.metro.tokyo.lg.jp/chiiki_tabunka/tabunka/tabunkasuishin/0000001620.html

6) 岩田さんは「やさしい日本語は、日本語を母語としない人、高齢者、障がいのある人などさまざまな人が対象となる。(「熊本市で「やさしい日本語講座」 外国人にも伝わりやすい日本語を」<YAHOO!JAPAN

ニュース>2023.08.31.<<https://news.yahoo.co.jp/articles/a8244487a7aed284b90eef5b435741ae947e971e>>(접속일: 2023.09.18)의 일부를 번역)

7) 본고에서 ‘일본어 학습자’는 일본어를 모어로 하지 않는 학습자로 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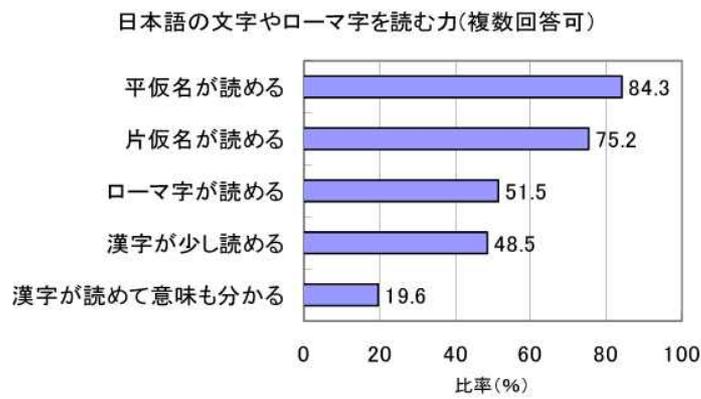
<표 1> 일상생활을 하는 데 불편하지 않은 언어 (*복수 응답 가능)

	언어	사람 수(%)
1	일본어	1026(61.7%)
2	영어	601(36.2%)
3	스페인어	47(2.8%)
4	포르투갈어	42(2.5%)
5	중국어	28(1.7%)

출처: 국립국어연구소(2009)「생활을 위한 일본어 : 전국조사」 결과 보고 <속보판> 한국어판 p.4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불편하지 않은 언어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영어보다 일본어가 우세하다. 그 비율도 61.7%로 절반을 웃도는 수준이다. 재해 시에는 정보 전달에 있어 속도와 정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해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다. 그렇기에 외국인의 일본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재해와 관련한 정보를 전달할 때 시급성 측면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2> 일본어의 문자나 로마자를 읽는 힘 (*복수 응답 가능)



출처: 文化庁(2001)日本語に対する在住外国人の意識に関する実態調査⁸⁾

<표 2>를 보면 외국인이 읽을 수 있는 문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문자는 히라가나로 84.3%이고 로마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51.3%에 그쳤다. 즉 히라가나 혹은 가타카나로 표기할 시 거의 모든 외국인이 읽을 수 있지만 로마자로 표기할 시 절반 정도만 읽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를 통해 외국인을 위한 정보 전달에는 영어보다 일본어가 더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다.

8) https://www.bunka.go.jp/tokei_hakusho_shuppan/tokeichosa/nihongokyoiku_jittai/zaiju_gaikokujin.html

<표 3>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국적 순위 (2022)

(1)	중국	761,563人 (+44,957人)
(2)	베트남	489,312人 (+56,378人)
(3)	한국	411,312人 (+1,457人)
(4)	필리핀	298,740人 (+22,125人)
(5)	브라질	209,430人 (+4,551人)
(6)	네팔	139,393人 (+42,284人)
(7)	인도네시아	98,865人 (+39,045人)
(8)	미국	60,804人 (+6,642人)
(9)	대만	57,294人 (+6,103人)
(10)	태국	56,701人 (+6,377人)

출처: 出入国在留管理庁(2023) 홈페이지⁹⁾에 나와 있는 내용을 표로 정리하였음.

<표 3>은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국적을 조사한 내용이다. 1위부터 3위까지의 공용어를 살펴보면 중국은 한어, 베트남은 베트남어, 한국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국가이다. 상위권 세 국가만 보더라도 영어권 국가가 아닌 독자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아시아 국가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상위 10개국의 인구가 모두 증가하는 추세이기에 앞으로도 아시아 국가의 비율은 상위권에 속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세 개의 표를 통해 과거부터 현재까지도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영어보다는 일본어가 보다 수용 가능성이 높은 언어임을 알 수 있었다. 더하여 <표 2>에서 한자를 읽을 수 있는 수보다 히라가나나 가타카나를 읽을 수 있는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보아 일반적인 일본어보다는 외국인도 알 수 있게끔 변형된 쉬운 일본어가 일본인은 물론 외국인까지 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표 1~3>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일본에서 발생한 재해라고 해서 일본인만을 대상으로 간주하고 일반적인 일본어를 사용해 정보를 전달하거나 영어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현지 수준의 일본어에 능하지 않거나 영어를 모르는 외국인은 정보 약자로서 생존에 취약한 상태가 된다. 그렇기에 쉬운 일본어가 필요하고, 쉽고 간결한 일본어 표현은 외국인을 비롯하여 일본어 수용 능력이 낮은 어린이나 노약자에게도 유효하다. 더하여 번역을 통한 다언어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일각이 급한 상황에서 번역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처럼 재해라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쉬운 일본어의 필요성과 역할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1) 2012년 실시한 ‘쉬운 일본어’ 뉴스 이해도 평가 실험(田中他, 2012)에서는 비한자권 국가 출신 외국인의 경우 원 기사에 대한 이해도가 52.9%인 것에 비해 ‘쉬운 일본어’ 기사는 70.8%로 그 효용성이 입증되었다.

한아름·이충호(2019)

1)의 인용문과 같이 쉬운 일본어의 도입은 정보 전달에 있어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

9) https://www.moi.go.jp/isa/publications/press/13_00033.html

을 알 수 있다. 비한자권 국가 출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에 앞으로는 과거 한자권 국가였던 한국을 포함하여 중국이나 대만과 같은 국가 출신 외국인을 위한 쉬운 일본어에 대한 공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やさしい日本語」와 일본식 표현

일본에 가면 음식점에서 [何になさいますか。(무엇으로 하시겠어요?)], 구청에서는 [身分証はお持ちになりますか。(신분증은 가지고 계십니까?)] 등의 표현을 자주 들을 수 있다. 동사「する」의 존경어인 [なさる], 동사의 경어 표현인 [お+持ち(持つ의ます形)+になる] 와 같은 표현은 일본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에게는 의미를 파악하는데 있어 방해 요소가 된다. ‘경어’가 있는 나라인 만큼 특히 공공기관, 서비스 장면에서 사용하는 표현들은 의미 전달보다는 정중함에 그 초점이 놓여있는 듯 보인다. 또한 경어 외에도 일본인의 ‘완곡한 표현’은 일본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지시와 명령의 경우,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결과로써 나타나는 행동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일본어가 서툰 외국인에게는 직접적인 표현이 의미 전달에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에게 전형적인 ‘일본식 표현’은 소통과 의미 전달에 불편과 혼선을 초래하는 언어적 장벽이 될 가능성이 현저하다.

2-1. 「やさしい日本語」와 경어 표현

한국어와 일본어의 공통점으로는 경어가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어나 중국어의 경우에는 경어가 있어 해당 국가의 모어 화자가 경어의 개념을 이해하기에 어렵지는 않으나 유럽어의 경우 경어가 드물어 그 개념의 이해부터 곤란할 수 있다.¹⁰⁾ 그러나 경어가 존재하는 언어를 모어로 한다고 해서 일본어 경어의 활용이 쉬운 것은 아니다. 특히 의미 전달에 핵심이 되는 단어나 동사가 경어라는 형태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이 주제에서는 일본어 경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어 표현을 「やさしい日本語」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떤 고민이 필요한지 논하기로 한다.

경어는 경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며 경의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いらっしゃる」와 같이 원래 동사의 활용과 무관하게 독립된 형태로 정해진 경어가 있는가 하면 동사의 형태를 변형하는 것만으로 경의를 나타내는 방법도 있다. 「お休みになる」 혹은 「休まれる」가 그 예다.

경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대우표현’에 대한 이해가 선행해야 하는데 대우표현이란 “같은 내용을 말하는데 화제의 등장인물·청자·장면 등을 배려하고 그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는 표현”¹¹⁾을 말한다. 즉 대우표현의 하위 범주으로써 경어가 존재하게 되

10) 유럽어 중에서도 정중도의 차이만 있을 뿐 체계적인 경어의 형태가 없는 언어는 경어가 존재하지 않는 언어로 취급함.

고 사용 형태에 따라 경의를 나타내는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다.

<표 4> 펜을 빌리는 상황 속 대우표현의 예시

お借りしてもよろしいでしょうか。	丁寧 ↑↓ ぞんざい	改まり ↑↓ ぐだけ	遠ざけ ↑↓ 親しみ
貸していただけますか。			
貸してくれませんか。			
貸してくれる?			
貸して。			
ペン。			

출처: 庵功雄・日高水穂・前田直子・山田敏弘・大和シゲミ(2020)

『やさしい日本語のしくみ日本語学の基本改訂版』くろしお出版 p.67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표 4>는 펜을 빌리는 상황을 예시로 한 대우표현의 예시이다. 「お借りしてもよろしいでしょうか」에 가까울수록 정중하고 격식 있으며 거리감이 있는 표현이고, 「ペン」에 가까울수록 난폭하고 스스럼없으며 친숙한 사이에서 사용하는 표현이 된다.

<표 5> 경어의 종류

경어	소재 경어 (素材 敬語)	존경어: 상대측 주어를 높이는 것
		겸양어: 본인 측 주어를 높이지 않는 것
	대자 경어 (対者 敬語)	정중어: 청자에 대한 경의

출처: 庵功雄・日高水穂・前田直子・山田敏弘・大和シゲミ(2020)

『やさしい日本語のしくみ日本語学の基本改訂版』くろしお出版 p.68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표 5>에서 참고한 자료에 따르면 소재 경어는 화제의 등장인물에 대한 경의를 나타내는 경어이고, 오로지 청자에 대한 경의를 나타내는 경어는 대자 경어이다.¹²⁾

2) (鈴木先生を話題にして)

a (別の先生) : 鈴木先生は、今日いらっしゃるかな?

b (学生) : いいえ、風でお休みになるそうです。¹³⁾

11) 同じ内容を述べるのに、話題の登場人物・聞き手・場面などに配慮し、それに応じて使い分ける表現を待遇表現といいます。(庵功雄・日高水穂・前田直子・山田敏弘・大和シゲミ(2020) 『やさしい日本語のしくみ 日本語学の基本 改訂版』くろしお出版 p.67

12) 庵功雄・日高水穂・前田直子・山田敏弘・大和シゲミ(2020) 『やさしい日本語のしくみ日本語学の基本改訂版』くろしお出版 p.68

13) 庵功雄・日高水穂・前田直子・山田敏弘・大和シゲミ(2020) 『やさしい日本語のしくみ日本語学の基本改訂版』くろしお出版 p.68의 예문의 일부를 활용

예문을 통해 설명하자면, 2)의 a에서 사용된 「いらっしゃる」와 b에서 사용된 「お休みになる」는 화제의 등장인물인 「鈴木先生」를 높이는 표현으로 소재 경어 중 존경어에 해당한다. 여기서 「鈴木先生」와는 별개로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이기 때문에 학생은 선생님에게 「です」를 사용하여 말하고 있다. 이는 등장인물인 「鈴木先生」를 높이는 것이 아닌 오로지 대화하는 상대이자 청자인 선생님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 있기에 대자 경어인 정중어에 해당한다.

<표 4>와 2)를 통해 상황과 대화 상대에 따라 경어의 사용과 표현 방식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어의 종류가 다양한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외국인이 정보와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현저함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예의를 중시하는 일본인에게 외국인을 대할 때는 경어 사용을 자제하라는 식의 요구를 하는 것은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는 처사이다. 그렇기에 외국인의 정보 수집과 의미 파악에 혼선을 주지 않으면서도 외국인을 동등하고 정중하게 대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일관된 경어의 사용이 그 답이다. 문장의 형식을 일관되게 사용하면서도 상대에 대한 경의를 표할 수 있는 ‘정중어’를 사용함으로써 소통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덜 수 있는 것이다. 정중어는 <표 5>에서 정리한 것처럼 대자 경어이며 현재 대화하고 있는 상대, 즉 오로지 청자에 대한 경의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やさしい日本語」를 위한 지침에 작성된 것에 따르면 존경어나 겸양어와 같은 소재 경어의 사용은 삼가고 정중어인 「です/ます」만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제시되어 있다.¹⁴⁾ 이를 근거로 상대방에 대한 경의를 포함과 동시에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간략화, 단순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です/ます」를 사용하면 한 문장의 끝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에 명확한 의미 전달에도 도움이 된다.

「やさしい日本語」는 일본인에게 외국인을 위해 완전히 새로운 일본어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일본어로 의미를 전달할 때 그 방식을 간결히 할 것을 제안한다. 「です/ます」만을 사용해서 전달하면 되는 간단한 수준의 제안이기에 일본인에게도 쉽게 수용될 만한 대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2. 「やさしい日本語」와 완곡한 표현

경어 외에 일본어가 가지는 표현상의 특징 중 하나는 우회적 표현, 완곡한 표현이다. 언어는 그 언어를 공통되게 사용하는 구성원의 문화를 반영한다. 그렇기에 언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그 언어에 침투한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고, 구성원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며 그들과 같은 사고방식을 기반으로 소통한다는 의미이다. 그렇기에 수동태, 수수 표현, 경어 등 일본어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은 곧 일본인의 성향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같은 맥락으로 일본어에는 생각이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를 꺼리는 일본인의 성향이 담겨있기에 의사 전달에서도 간접적인 표현을 택하는 경향이 짙다. 외국인

14) 尊敬語、謙讓語は使わず、敬語は丁寧語だけにします。 (出入国在留管理庁・文化庁(2020)「在留支援のためのやさしい日本語ガイドライン」 p.10)

이 일본인이 말하는 의도를 한 번에 알아채지 못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3) A : 日曜日、一緒に遊びに行かない?

B : ごめん、日曜日はちょっと…

3)의 대화는 A의 식사 권유를 B가 거절하는 상황을 가정한 대화문이다. 여기서 B는 적극적으로 명확한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고, 간접적으로 그날은 어려울 것 같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물론 일본어 모어 화자는 B의 답변이 거절의 표현임을 단번에 알아챌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이 모든 상황에서 모어 화자와 같은 수준으로 대화의 의도를 파악할 수는 없다. 물론 상대방의 언어적 표현 외에 표정이나 말투와 같은 비언어적 표현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며 소통하기에 경험을 통해 터득할 가능성은 있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외국인에게 있어 애매한 표현은 정확한 의미 파악에 걸림돌이 된다.

「やさしい日本語」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애매한 표현은 자제할 것을 말한다.¹⁵⁾ 오해 없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인데 다양한 장면 안에서도 명령과 지시의 상황에서는 더욱이 애매한 표현은 삼가는 것이 좋다. 특히 직장에서 외국인 동료를 상대로 업무를 지시할 때는 애매하거나 생략된 표현은 업무 이해도의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4) (会社で、田中さんが同僚のマリーさんに言う)

「あ、マリーさん。これコピーしといてって山田さん言ってましたよ。」

4)의 상황은 「田中さん」이 외국인 동료 「マリーさん」에게 복사를 부탁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누가 누구에게 어떤 행위를 지시했는지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그렇기에 「マリーさん」은 이 이야기를 왜 자신한테 하는지, 본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동료에게 부탁이나 지시할 때는 누가 누구에게 어떤 업무를 지시했는지 순서대로 명확하게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5) 「あ、マリーさん。これコピーしといてって山田さん言ってましたよ。」

▷ a 「あ、マリーさん。お願いがあります。これマリーさんがコピーしてください。

そのあと、山田さんに渡してください。山田さんです。」

▷ b 「あ、マリーさん。今、いいですか。これコピーして、山田さんに渡してください。お願いします。」

a와 b는 4)에서 밑줄 친 부분을 「やさしい日本語」의 지침을 참고하여 바꾼 것이다. 우선 누가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어 수준이 초급 정도인 외국인에게는 a처럼 되도록 한 문장의 길이를 짧게 줄여 중요한 부

15) 出入国在留管理庁・文化庁(2020)「在留支援のためのやさしい日本語ガイドライン」 p.9 참조

분은 반복해서 말해주는 것이 좋다. 어느 정도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중급 수준의 외국인 동료를 대상으로는 b와 같이 지시의 내용을 생략하지 않는 선에서 간단하게 전달할 수 있다.

업무상의 요청, 지시, 명령의 경우 「~してください」 혹은 「~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¹⁶⁾의 형태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물론 상황에 따라 조금씩 형태가 달라질 수는 있으나, 오해를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정확하게 업무를 지시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상황에서는 유사한 문장 형태를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된 정중어의 사용과 마찬가지로 문장의 형태를 단순화하고 통일하는 것만으로도 외국인이 일본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대체로 직접적인 표현을 꺼리는 일본인에게 상대방의 기분보다 내용 전달에 집중하여 소통하라는 제안은 심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상대에 대한 경의를 표하면서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이 배려임을 이해한다면 심리적 거부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모어 화자에게는 모어를 사용함에 있어 다시 한번 더 생각을 거치는 과정이 추가되기에 심리적 거부감과 별개로 번거로울 수 있으나 「やさしい日本語」의 탄생 배경을 인지하고 있다면 기꺼이 수용할 만한 번거로움일 것이다.

3. 「やさしい日本語」에 대한 교육학적 고찰

앞에서 서술한 내용을 정리하면 「やさしい日本語」는 외국인도 알기 쉽도록 간략화하고 단순화한 일본어라고 할 수 있다. 복잡성과 다양성을 배제하고 통일된 문장구조와 표현 양식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의미 혹은 정보 전달의 정확성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오해 없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용성은 입증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학적 관점, 특히 제2 언어습득의 관점에서 보면 「やさしい日本語」는 외국인 학습자에게서 다양한 형태의 일본어를 접할 기회를 빼앗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즉 외국인을 배려하기 위해 생겨난 「やさしい日本語」가 되려 학습자의 인풋을 저해하는 일본어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やさしい日本語」가 더 이상 재난이라는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사용되지 않고, 일상적인 장면에서 이르기까지 그 사용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제기할 수 있다. 물론 관광 시에 외국인에게 지역의 역사와 특산물을 소개하는 경우 혹은 구청에서 전입 신고하는 외국인을 상대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와 의미의 전달이 중요한 상황이기에 「やさしい日本語」의 사용이 유효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모든 장면에서 「やさしい日本語」가 쓰이게 되면 외국인이 일상생활에서 접하고, 습득할 수 있는 일본어에 제약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기에 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 「やさしい日本語」의 일상적 일반화와 보급은 일본어 학습자가 접하게 되는 일본어의 어휘, 표현 등이 지나치게 제한된 형태로 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2 언어습득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외국인 학습자의 일본어 실력 향상에 있어 「やさしい日

16) 出入国在留管理庁・文化庁(2020)「在留支援のためのやさしい日本語ガイドライン」 p.10 참조

本語」의 사용을 전면 긍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부터는 「やさしい日本語」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일본어 문장 또는 표현의 단순화와 통일이 제2 언어습득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매슬로의 욕구 위계 이론을 통해 정의적인 측면에서의 한계점을 밝히고 크라센의 인풋 가설을 통해 인지적 측면에서의 한계점을 비판한다.

3-1. 매슬로의 욕구 위계 이론에 입각한 「やさしい日本語」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주목적인 일본 거주 외국인에게 정확한 정보 수용을 가능하게 하고 복잡성과 다양성을 없애 단순화한 「やさしい日本語」의 일반화는 반가운 소식일 수 있다. 하지만 일본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이 생존을 위한 일본어를 추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누군가는 현지에서 사용하는 정제되지 않은 일본어를 배우고 싶어서, 또 누군가는 고등 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학술적인 용어를 체득하여 높은 수준의 일본어를 구사하고 싶어 일본에 거주하고 있을 수도 있다. 즉 생업을 유지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하기 위해 동기화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어 화자와 같은 수준으로 사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한 동기로, 더 높은 수준의 고급 일본어를 추구하며 동기화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재해 상황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일시적이고 특수한 상황을 배제하고서는 외국인이 일상생활에서 각자 추구하는 일본어에 개인차가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기와 욕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어떤 욕구를 가지고 동기화하느냐에 따라 인간의 행위가 결정되며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내적인 동기는 각자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비슷한 수준의 일본어를 구사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때 각자가 가진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 5년 뒤에는 전혀 다른 수준의 일본어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일본어 실력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본에서 굶지 않고 살 정도의, 즉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일본어 능력만 갖춘 채로 그 이상의 공부를 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일본 현지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유학을 온 대학생은 일본어로 논문을 작성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려 노력할 것이다. 이처럼 어떠한 목적을 가지느냐에 따라 학습자가 설정한 일본어 발화자로서 기대되는 자아 혹은 이상적 자아는 달라지기 마련이다. 이는 결국 서로 다른 동기로 일본어를 대한다는 의미이고 내재한 욕구 또한 개인마다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본어를 공부하는가는 그 사람의 욕구와 상관이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가 원하는 교육적 수준이나 정도의 파악을 위해 학습자가 가진 욕구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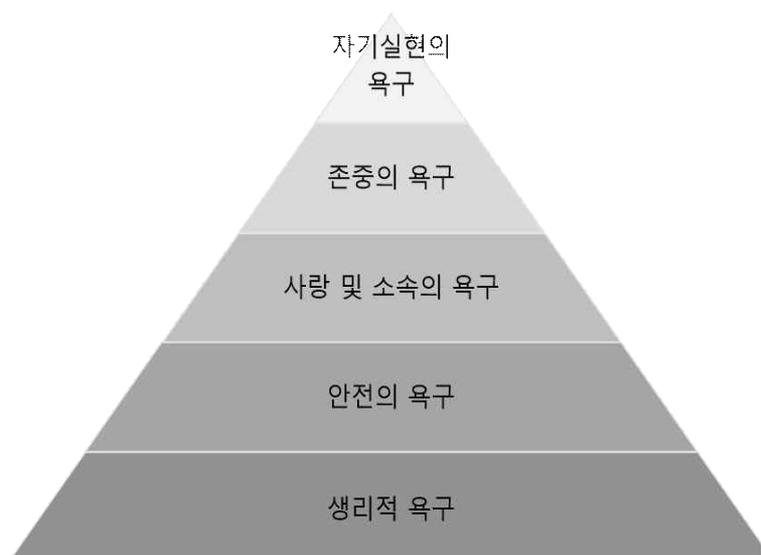
학습자의 욕구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써 매슬로¹⁷⁾의 동기 이론에서 제시된 욕구

17) 아브라함 매슬로(1908~1970)는 미국의 심리학자로 그가 제시한 이론으로는 유기체 이론, 동기 이론, 욕구 위계 이론 등이 있다.

위계 이론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학습자가 일본어를 대하는 태도 혹은 동기화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매슬로는 인간의 욕구를 통해 행위의 이유를 설명한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욕구에는 위계가 있고, 하위단계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상위단계의 욕구를 추구하게 된다. 또 모든 사람이 같은 수준으로 동기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표 6> 매슬로의 욕구 위계 5단계



<표 6>은 매슬로가 제시한 욕구 위계 이론을 바탕으로 욕구 간 위계가 드러나도록 표로 정리한 것이다. 인간의 행위는 다양한 이유로 동기화하는데, 매슬로의 욕구 위계 이론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가장 하위의 욕구인 ‘생리적 욕구’는 의식주에 관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다. ‘안전의 욕구’는 여러 위협으로부터 안전해지려 하는 욕구이고, ‘사랑 및 소속의 욕구’는 가족이나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소외되지 않고자 하는 욕구이다. ‘존중의 욕구’는 인간이 가진 인정 욕구와 비슷한 맥락으로, 자신의 행위나 업적에 대한 타인의 존중,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아 존중을 포함한 인격체로서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상위의 욕구인 ‘자기실현의 욕구’는 아래의 모든 욕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위 욕구가 모두 충족되었을 때 추구할 수 있는 욕구이며 자기 잠재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이처럼 매슬로는 인간이 행위를 하도록 이끄는 동기가 욕구에서 기인한다고 보았고, 그 욕구를 위계가 있는 5단계로 구분하였다.¹⁸⁾

이러한 매슬로의 욕구 위계 이론을 일본어 학습과 연관시켜 살펴보면, 가장 하위단계인 생리적 욕구는 입고, 자고, 먹을 것을 구할 때 요구되는 일본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면 안전의 욕구를 추구하게 되는데 이는 사회적,

18) 본고에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매슬로의 이론을 따르고 있기에 별도의 인용문을 제시하지 않음.

신체적, 감정적으로 안전하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려는 욕구로 「やさしい日本語」의 탄생 배경인 지진과 같은 재해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해 알아야 하는 일본어라고 할 수 있다. 그보다 더 발전한 사랑 및 소속의 욕구는 가족, 친구와 원만한 관계를 맺고 어느 한 곳에 소속되고 싶어 하는 욕구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소외되지 않기 위한, 즉 구성원과의 소통을 위한 일본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을 배려하고 그들이 사회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배려한 「やさしい日本語」는 해당 욕구에도 위치시킬 수 있다. 존중의 욕구는 타인에게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이자 자기 긍정 개념이기에 일본어능력시험에서 높은 레벨을 성취하여 합격증 혹은 자기 존중심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일본어를 예시로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상위의 자기실현 욕구는 하위의 모든 욕구가 충족되어야 추구 가능한 자기 잠재력 발휘에 관한 욕구로써 이는 일본어를 통해 최대의 자기실현이 가능할 때 충족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매슬로의 이론을 통해 외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학습 동기의 근원이 되는 욕구가 일률적이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일본어 능력 수준에 따라 사용하는 어휘, 표현 양식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학습의 목적과 학습자가 설정한 일본어 발화자로서의 이상적 자아에 따라 추구하는 일본어의 수준은 달라진다. 그렇기에 모든 외국인이 재해 상황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혹은 의미 파악 자체에만 초점을 두고 일본어 학습의 욕구를 가진다고 확신할 수 없고, 어려운 수준의 일본어의 사용이 외국인에게 불편을 유발하는 요소라 단정해서도 안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やさしい日本語」의 일반화가 반드시 외국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확언할 수 없다. 오히려 학습자 개인의 다양한 욕구와 동기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물론 매슬로의 욕구 위계 이론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다. 한 번에 한 개의 욕구만을 추구할 수 있지 않은 점, 즉 동시에 여러 욕구를 추구할 수 있는 점, 그리고 반드시 하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상위의 욕구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やさしい日本語」가 가지는 한계는 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학습자가 안전의 욕구와 더불어 자기실현의 욕구를 가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하위의 모든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높은 수준의 욕구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략화, 단순화한 「やさしい日本語」는 여전히 서로 다른 동기와 욕구를 가진 학습자들이 추구하는 일본어에 대응하지 못한다.

이처럼 자기실현 욕구를 가진 채 고급 일본어 사용을 추구하고, 더 다양한 형태의 일본어 표현을 접하고 싶어 하는 외국인 학습자에게 안전의 욕구 혹은 사랑 및 소속의 욕구 단계에 해당하는 「やさしい日本語」는 어려운 어휘는 제한되고 단순화, 간략화한 표현만 사용된 시시한 일본어에 불과하다. 일본어 학습자에게 있어 「やさしい日本語」가 가지는 한계를 소비시장에 비유한다면,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구조가 바뀌고 있음에도 소비자마다 서로 다른 니즈를 가졌다는 것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 볼 수 있다. 소비자의 수요를 파악하지 못하면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없기에 소비자 만족도가 하락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떠

한 욕구를 가졌는지부터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やさしい日本語」를 일반화하기 전에 일본어 학습자가 일본에 거주하면서까지 얻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우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 다른 욕구를 가진 학습자들이 추구하는 일본어 혹은 욕구가 가지는 다양성을 무시한다면 「やさしい日本語」는 영양가 있는 인풋으로써 작용할 수 없을뿐더러 학습자의 동기마저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

3-2. 스티븐 크라센의 Input 가설에 입각한 「やさしい日本語」

매슬로의 욕구 위계 이론을 통해 정의적 측면에서 외국인 학습자들이 서로 다른 욕구로 동기화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서로 다른 일본어의 다양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やさしい日本語」를 비판했다. 이는 곧 학습자가 가진 욕구와 수준에 따라 원하는 인풋의 양과 질이 다르다는 것으로 이어진다. 매슬로의 이론을 통해 살펴본 정의적, 즉 내적 동기 측면에서의 「やさしい日本語」의 한계와 더불어 스티븐 크라센의 Input 가설을 통해 인지적 측면에서 「やさしい日本語」가 가지는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크라센의 Input 가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2 언어습득의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가 언어정보를 수용해서 산출하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왜 크라센이 제2 언어습득에 있어 Input에 방점을 찍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림 1> 第二言語習得のプロセス : 제2 언어습득 과정



출처: 小柳かおる(2020) 『第二言語習得について日本語教師が知っておくべきこと』 くろしお出版 p.12의 그림을 참조하여 제작하였음.

<그림 1>은 학습자가 인풋을 받아들여 아웃풋이라는 형태로 나타낼 때까지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小柳かおる(2020)이 제시한 그림을 바탕으로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インプット’는 읽거나 듣기와 같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말한다. 다음으로 일어나는 ‘気づき’는 들어온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는 과정이고, ‘理解’는 언어형식과 의미-기능을 대응시키는 과정이다. 이때 상호 간 전달 의도의 오해가 없도록 반복적인 주고받기라는 ‘의미교섭’이 일어나고, 애매한 부분을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도록 요구하는 ‘명확화 요구’를 통해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インテイク’는 수많은 정보

중에서 가려내어 엄선된 인풋으로 ‘気づき’와 ‘理解’, 즉 주의를 기울여 이해의 과정을 거친 인풋이다. 이는 습득에 사용되는 학습자의 언어 데이터가 된다. 또 ‘インテイク’는 ‘가설 검증’의 과정을 나타내는 용어로도 사용하는데 자신의 아웃풋과 모어 화자의 발화 패턴을 비교하며 확인하는 일종의 모니터링 과정이라 볼 수 있다. ‘アウトプット’에서 ‘インテイク’로 향하는 화살표가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작업기억에서 장기기억으로 저장하는 과정이 ‘統合’의 과정이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말하기 혹은 쓰기와 같은 형태인 ‘アウトプット’로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학습자의 아웃풋은 다시금 새로운 인풋이 된다. 이것이 ‘アウトプット’에서 ‘インプット’으로 향하는 화살표를 의미한다. 인풋에서 아웃풋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단 1번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닌 같은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습득된다.¹⁹⁾

<그림 1>을 통해 제2 언어습득은 언어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의 연속으로, 수용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피드백, 자기 모니터링, 상호 교섭을 통한 수정 등이 일어나며 발전 되어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2 언어습득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 안에서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요구되는 학습 방법도 상이할 것이다. 크라센은 이 과정 중에서도 제2 언어습득의 시발점인 인풋이 제2 언어습득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小柳かおる(2020)이 정리한 크라센의 이론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nput 가설의 대전제는 대량의 인풋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제2 언어습득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현재 학습자의 수준을 ‘i’라고 한다면 그보다 약간 높은 레벨의 인풋을 ‘i+1’라 한다. 이때 ‘i+1’은 「理解可能なインプット」, 번역하면 ‘이해 가능한 인풋’을 의미한다. 이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언어습득 능력인 생득적 언어습득 장치가 가능한 것으로, 이를 「ナチュラル・アプローチ(Natural Approach)」라 한다. 또한 크라센은 ‘학습’과 ‘습득’을 구분하는데 학습은 전통적인 문법 중시 수업에서 배우는 것을 가리키며 그를 통해 얻게 되는 지식은 명시적 지식이다. 반면 습득은 그 시점에 학습자가 달성한 수준보다 살짝 높은 수준의 언어형식을 포함한, 즉 이해 가능한 인풋을 다량 수용함으로써 무의식 혹은 잠재 의식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때 얻게 되는 지식은 암시적 지식이다. 더불어 교실에서 일어나는 의식적 학습은 실질적으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암시적 지식, 즉 습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²⁰⁾

이러한 크라센의 인풋 가설, 그리고 학습과 습득을 구분하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やさしい日本語」의 일반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가진다.

첫째, 지속적인 ‘i+1’의 제공이 불가하다. ‘i+1’은 ‘이해 가능한 인풋’을 뜻하지만, 학습자가 수월하게 이해 가능한 인풋은 아니다. 다시 말해 ‘i+1’은 학습자의 수준을 상회하는 인풋으로 학습자의 주의를 노력이 필요한 인풋이라 할 수 있다. 일본어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는 「やさしい日本語」로 쓰인 일본어가 학습자의 수준을 웃도는

19) 小柳かおる(2020) 『第二言語習得について日本語教師が知っておくべきこと』 くろしお出版 pp.12-14

20) 小柳かおる(2020) 『第二言語習得について日本語教師が知っておくべきこと』 くろしお出版 p.76,

p.104

'i+1' 혹은 'i+2'와 같은 'i+α'라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학습자의 수준과 동일한 혹은 학습자의 수준에 못 미치는 정도의 인풋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일본어 학습에 두는 무게와 개인이 쏟는 노력에 따라 일본어 능력 신장에는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일본어 학습자는 일본에서 보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인풋을 받아들이며 더 높은 수준의 일본어를 구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やさしい日本語」로 제공되는 일본어는 더 이상 'i+1'이 아니게 되고, 학습자로 하여금 자극과 깨달음을 요구하지 않는 일본어가 된다. 일본어 학습자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 수준에 상응하는 적절한 인풋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의미 전달과 더불어 같은 의미여도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 혹은 더 정중하게 말하는 방식 등과 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인풋이 제공되어야 한다. 즉 학습자 자신이 정해 놓은 일본어 발화자로서의 이상적 자아로 발돋움할 수 있는 인풋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문장의 형태를 통일시키고 단순화, 간략화하여 정보와 의미 전달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과제인 「やさしい日本語」는 수준과 형식의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준 높은 인풋의 제공을 저해한다. 따라서 일상적 장면에서의 일본어를 「やさしい日本語」로 대체하려는 것은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지속적인 'i+1'을 제공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한계를 가진다.

「やさしい日本語」가 가지는 두 번째 한계로는 크라센이 제시한 '학습'과 '습득'의 차이에서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일상생활에서 습득의 빈도가 줄어들게 된다는 점이다. 학습을 통해 얻게 되는 지식은 명시적 지식으로 전통적 문법 중시 수업에서 얻게 되는 지식이다. 이러한 학습이 수업 상황에서 의식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습득은 무의식적이고 잠재 의식적으로 일어나며 이때 얻게 되는 지식은 암시적 지식이다. 학습과 습득을 구분하며 제2 언어습득에 관여하는 것은 학습이 아닌 습득이라고 주장한 크라센의 의견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교실을 벗어난 일상적 장면에서의 인풋으로써의 일본어는 그 중요성이 대폭 증대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교실 책상에 앉아 교과서를 통해 배우는 학습보다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언어 자극을 수용하며 발생하는 무의식적 습득이 제2 언어습득에는 더 효과적이기에 일상적 장면에서의 「やさしい日本語」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일상적 언어정보를 획일화, 간략화한 「やさしい日本語」의 형태로 접하게 되면 일본어 학습자에게서 발생하는 습득의 빈도수는 점점 줄어들고, 습득의 질 또한 낮은 수준으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습득이라는 과정의 출발점인 일상적 장면에서의 인풋이 「やさしい日本語」의 형태로 제시되는 것은 제2 언어습득의 빈도와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위와 같은 두 이유를 근거로 「やさしい日本語」는 내적 동기와 욕구를 포함하는 정의적 측면에서만뿐만 아니라 언어습득 과정의 인지적 측면에서도 한계를 가진다.

물론 지진이나 홍수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やさしい日本語」의 교육적 가치를 논하는 것은 「やさしい日本語」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일 것이다. 또 정보의 왜곡이나 의미 전달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やさしい日本語」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의적·인지적 한계를 가지는 「やさしい日本語」의 사용 범위가 지나치게 일상적인 장면까지 확대되어 제2 언어습득을 방해한다는 문제를 제기한 지금, 「やさしい日本語」가 교육적으로 분명한 한계를 가진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학습 초기에 공공기관이나 병원에서 사용되는 「やさしい日本語」를 제시하면 언어적 장벽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에게 일본어에 대한 흥미를 심어줄 수 있다. 또 학습자의 수준에 맞추어 「やさしい日本語」를 인풋의 한 갈래로 적절하게 사용하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습자가 수용하게 될 일상적 인풋이 전부 쉽기만 한 일본어라면 일본이라는 공간에서 얻을 수 있는 배움이 적어질 것이다. 따라서 일본어 학습자에게는 「やさしい日本語」뿐 아니라 어렵고 복잡한 일본어의 인풋도 필요하다. 그렇기에 학습자의 능력 신장을 위해서라도 「やさしい日本語」의 사용 범위의 제한과 명확한 역할 구분은 필요하다.

Ⅲ 나가며

본고에서는 일본 사회에서 「やさしい日本語」가 가지는 효과와 필요성을 경어와 완곡한 표현을 대체하는 대안으로써 제시함과 동시에 매슬로의 욕구 위계 이론을 통해 정의적 측면에서의 한계를, 그리고 크라센의 Input 가설을 통해 인지적 측면에서의 한계를 지적했다. 「やさしい日本語」가 재해 상황에서 소외된 외국인을 배려하고, 그들이 일본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큰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외국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어나 완곡한 표현을 대체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임도 분명하다. 그러나 매슬로와 크라센의 이론을 통해 제2 언어습득의 관점에서 밝힌 것과 같이 「やさしい日本語」의 사용이 일상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일본어 학습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일상에서 접하게 되는 인풋의 양과 질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やさしい日本語」의 가치를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やさしい日本語」가 가진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면 「やさしい日本語」가 탁월하게 발휘될 수 있는 역할과 범위를 한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학습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묻지 않고, 외국인이라면 당연히 쉬운 일본어를 반기리라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모어화자 중심적인 생각일 수 있다. 배려를 받는 대상이 요구하지 않은 형태로까지 확장된 배려는 더 이상 배려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やさしい日本語」가 정보 약자를 해결하고 소외된 외국인에게 쉽게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로 탄생한 것은 분명하나 의도치 않게 외국인의 사회적 위치와 성장 가능성을 한정해 두는 처사일 수도 있다. 일본 사회에서 정보 약자였던 외국인을 살린 「やさしい日本語」가 오히려 외국인을 문화 자본의 약자로 위치시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일본어 학습자와 소통할 때는 지금의 수준에 맞추어 소통하려는 배려와 더불어 그가 일본어 발화자로서 설정한 목표가 무엇인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자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그의 잠재력과

가능성에 한계를 정해두고 있지는 않은지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일본어 학습자를 '외국인'이라는 하나의 집단으로 규정하는 순간 그 구성원을 이루는 개인을 보기 어려워진다. 「やさしい日本語」가 가진 한계를 인지하는 것은 곧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서로 다른 욕구를 가진 개별적 인간으로 재인식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やさしい日本語」가 처음 고안되고 사용된 것처럼 앞으로도 상냥하고, 쉬운 일본어로 남기 위해서는 외국인인면서 일본어 학습자인 그들 스스로가 욕구를 충족하고 발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やさしい日本語」가 가진 「やさしさ」는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중용의 배려일 때 가장 빛날 것이다.

[참고문헌]

- 원광대학교원불교사상연구원(2013) 『원불교대사전』 원불교출판사
- 한아름·이충호(2019) 「'쉬운 일본어'와 다문화공생을 위한 '쉬운 한국어'의 가능성」 『비교일본학』 제45권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pp.291-310
- 庵功雄·日高水穂·前田直子·山田敏弘·大和シゲミ(2020) 『やさしい日本語のしくみ日本語学の基本改訂版』 くろしお出版
- 共同通信社取材班(2011) 『ニッポンに生きる』 現代人分社
- 国立国語研究所(2009) 『「生活のための日本語：全国調査」結果報告<速報版>』 国立国語研究所
- 小柳かおる(2020) 『第二言語習得について日本語教師が知っておくべきこと』 くろしお出版
- 静岡県県民生活局多文化共生課(2018) 『「やさしい日本語」の手引き』 静岡県庁
- 出入国在留管理庁·文化庁(2020) 『在留支援のためのやさしい日本語ガイドライン』 出入国在留管理庁·文化庁

[기타자료]

- 인터넷 기사

「熊本市で「やさしい日本語講座」外国人にも伝わりやすい日本語を」<YAHOO!JAPANニュース>2023.08.31.<<https://news.yahoo.co.jp/articles/a8244487a7aed284b90eef5b435741ae947e971e>> (접속일: 2023.09.18.)

「子どもや外国人にもわかりやすくーNHKの津波警報で注目の「やさしい日本語」とは」<YAHOO!JAPAN ニュース> 2016.11.24.<<https://news.yahoo.co.jp/byline/tanakaiki/20161124-00064777>> (접속일: 2023.09.11.)

- 통계자료

出入国在留管理庁(2023) 「令和4年末現在における在留外国人数について-国籍・地域別」<https://www.moj.go.jp/isa/publications/press/13_00033.html>

文化庁(2001) 「日本語に対する在住外国人の意識に関する実態調査」<https://www.bunka.go.jp/tokei_hakusho_shuppan/tokeichosa/nihongokyoiku_jittai/zaiju_gaikokujin.html>